

# 蘇聯의 林業發達과 極東山林開發에 關連된 우리의 課題 II

俞 炳 一 / 임업연구원

〈前號에서 계속〉

## IV. 日本과의 極東山林資源開發實態

蘇聯의 山林資源開發은 2 차대전 이후 시베리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資源開發을 本格化함에 따라 山林資源도 外國 주로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表4와 같이 1969년부터 山林開發事業과 칩·펄프재

開發事業, 종이工場建設事業 등을 推進하고 있다. 이 중에는 벌써 끝난 것도 있고 交渉段階에 있는 것도 있으나 日·蘇間의 이해 關係가 최근들어 상이해짐에 따라 협상이 난항상태이다.

表 4. 日本의 林業關聯 시베리아開發實態

프로젝트명	基本契約期間	프로젝트內容	備考
第1次 極東山林資源開發事業	1969 - 1973	일본 : KS산업, 소련 : 전소목재 수출 공단 일반재, 펄프재, 제재목 수입 (펄프 760만, 제재 42만 총 802만㎡)	완 료
第2次 極東山林資源開發事業	1975 - 1979	일본 : KS산업, 소련 : 전소목재 수출 공단 용재, 제재목 수입 (용재 1,750만, 제재 90만 총 1,840만㎡)	완 료
第3次 極東山林資源開發事業	1981 - 1985	목재 수입 (총 1,324만㎡)	완 료
第4次 極東山林資源開發事業			교섭중
第1次 칩 펄프재 開發事業	1971 - 1981	일본 : 칩무역, 소련 : " 활엽수펄프재 470만㎡와 칩 800만㎡ 수입	완 료
第2次 칩 펄프재 開發事業	1986 - 1995	일본 : 칩무역, 소련 : " 활엽수펄프재 300만㎡와 칩 820만㎡ 수입	사업중

프로젝트명	基本契約期間	프로젝트內容	備考
극동종이 펄프工場 建設事業 其他	1988	일본: 대륙무역, 소련 전소 임업합동 연간 9만m <sup>3</sup> 제재목 수입	교섭중 ?

### V. 林産物 生産 實態

蘇聯의 林産物生産實態는 '86년의 경우 表 5와 같이 377.6백만 m<sup>3</sup>을 생산하여 18.5백만 m<sup>3</sup>를 수출하였다.

表 5. 原木生産 및 輸入·輸出 推移

단위: 백만 m<sup>3</sup>

年度	生産	輸入	輸出
1978	361.4	0.2	18.5
1980	356.6	0.2	14.8
1982	355.9	0.2	14.5
1984	367.9	0.2	15.8
1986	377.6	0.2	18.5

\*자료: Yearbook of Forest Products, FAO

### VI. 今後 我國과의 關係

蘇聯과 中國間的 關係는 1988 北京에서 開催된 中·蘇頂上會談結果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회담결과의 의미중 하나는 中國과 蘇聯이 다같이 國內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門戶를 開放하고 市場經濟의 要素를 導入함으로써 理念論爭을 清算하고 서로가 經濟改革措置에 協助하는 段階로 發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經濟 協力は 세계에서 가장 긴 國境에서 이루어지는 國境貿易의 擴大와 함께 資源이 豊富한 中國의 東北 3省(黑龍

江省, 吉林省, 遼寧省)과 沿海州를 포함한 蘇聯의 極東地域을 東北아시아의 새로운 經濟協力圈으로 共同開發한다는 計劃으로 具體化되고 있다.

이사업을 위해 中國과 蘇聯은 이미 渾春(1988年 12月, 吉林省 政府單位에서 中·蘇 및 北韓과의 國境貿易 中心地로 正式 開放한 豆滿江 河口都市로 內陸經濟特區로 指定될 豫定이며 沿邊朝鮮族自治州內에 있음)과 나호트카港을 연결하는 철도건설과 심양·하바로프스크·나호트카등에 경제특별구를 설치하여 한국 북한 일본을 참여시킬 準備를 하고 있다.

韓國과 蘇聯의 林業分野의 協力狀態는 1979年 政府의 對東歐圈市場開拓 施策의 一環으로 北洋材輸入이 檢討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年 국제상사가 C級 非製材用材(Pulp log Group "C") 6,000m<sup>3</sup>를 日本 FELT를 통해 國內 동해펄프(株)에 처음 販賣함으로써 北洋材가 처음으로 韓國市場에 輸入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에 국제상사가 C級 非製材用材 15,000m<sup>3</sup>을 부산을 통해, 東和企業이 B級非製材用材 7,000m<sup>3</sup>을 인천을 통해 輸入 販賣하였으며, 1982년에는 국제상사가 日本의 offer를 排除한 체 스웨덴의 WONSON A. B.를 대리인으로 合議하여 蘇聯과 直接 FOB條件으로 年間輸



入契約을 締結하여 輸入하였다.

1983年 1月28日에는 北洋材가 輸入承認 品目으로 指定(商工部告示 83-3號) 되어 蘇聯 對應輸出 30% 履行條件으로 北洋材의 實質의 輸入獨點權이 국제상사에게 附與되었으나, 1989年 1月1日자로 北洋材는 AA(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變更되어 輸入되고 있다.

최근들어 北方外交가 積極的으로 推進됨에 따라 蘇聯의 北洋材는 우리나라의 對蘇聯 輸入可能品目으로 脚光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三星, 現代, 大字, 쌍용, 三美, 鮮京, 靑邱物産 등이 과거부터 北洋材를 輸入하고 있던 국제상사와 함께 北洋材 導入을 推進하거나 進行中에 있다. 특히, 現代는 1989년부터 本格的으로 시베리아 山林開發計劃을 樹立하여 스베틀라야 附近의 100萬ha에 대한 開發 契約을 1989年 12月 28日 서울交通社에서 蘇聯과 締結한 狀態이다.

現代의 計劃에 따르면 1990년 하반기부터 30년간 연해주林業生産聯合과 合作으로 山林 100萬ha를 1次的으로 약6,400萬 루블(약350億원)을 投入開發하여, 年間 100萬m<sup>3</sup>을 生産할 計劃으로 一部는 國內에 輸入, 나머지는 海外輸出을 計劃하고 있는데, 이미 開發原木을 國內에 輸入하였다.

이와같은 山林開發 以外에 開發效果를 極大化시키기 위하여 蘇聯側과 合作으로 1段階 原木과 칩生産 以外에 2段階는 製材木, 3段階로는 合板 加工工場을 設立할

計劃도 있어 國內에 輸入될 北洋材는 今後 점차 增加될 것이 豫想되고 있으며 기존의 國內木材流通·需給 構造를 크게 變換시킬 것으로 展望되나, 國內에서 北洋材에 대한 用度開發이 活性化되지 않는 한 輸入量은 크게 伸張되지 못할 것도 豫想되는 바이다. 또한 極東地域의 勞動力不足을 解決하기 위하여 北韓 및 中國으로부터의 노동력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 지역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실정이다. 일본이 그동안 수십년간 북양재수입을 해왔지만 직접 산림개발을 자제하였으며, 아직 어느나라도 소련에서 직접 산림을 벌채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는 點과 劣惡한 自然環境條件등을 勘案할 때 極東地域의 山林開發事業은 韓國이 그동안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PNG 등 南方에서 山林開發을 수십년간 해 온 經驗을 最大한 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北洋材 輸入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1年 23千m<sup>3</sup>을 시작으로 1980年代 계속하여 1%를 크게 上廻하지 못한 狀態이며 1988년에는 99千m<sup>3</sup>로 增加하였으나, 아직까지 全體 外材輸入量의 1.4%水準에 不過한 實情이며, 金額面에서도 全體 原木導入額의 1%를 초과하지 못한 未盡한 實情인데, 北洋材의 경우는 비교적 價格變化幅이 年差別로 커 安定的인 供給體系를 갖추지는 못한 狀態라고 할 수 있으며, 樹種別로는 Birch, Aspen 등의 Pulp Log Group C가 供給增加狀態이다. (다음호에 계속)



당신은 문화인, 질서를 생활화